

**내일 '반가운 비'** 10월 21일 (음 8월 30일)

광주	13~26°C
목포	14~26°C
여수	18~25°C
완주	14~26°C
구례	12~27°C
남원	10~26°C
해동	12~26°C
순창	11~27°C
영광	11~27°C
진안	12~27°C
진천	13~27°C
정읍	9~26°C
고성	12~26°C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0.5~1.5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1:25 썰물 < 06:43  
13:51 19:06

여수 밀물 < 08:33 썰물 < 02:10  
14:33 20:35

◇주간 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날씨						
최저/최고	15/22	13/21	9/21	9/20	9/21	8/21

오늘 61주년 경찰의 날

'박사 경찰' 광주동부서 김운곤 경위



사회적 약자 돕는게 작은 소망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이라면 웬지 험악하고 우락부락한 인상이 떠오른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책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하지만 '주경야독' (晝耕夜讀)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틈틈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학구파 경찰'도 있다.

고졸 순경, 주경야독으로 박사학위

1980년 2월 순경으로 임관한 당시 김 팀장의 당시 학력은 고졸. 목포고등학교 재시절부터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했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한 영어실력을 살려 카투사(KATUSA)에 입대했다가 제대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배울엔 끝이 없다는 말처럼 (공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 같아 박사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무식하다'는 편견을 없애고 싶어 박사과정에 도전한 김 팀장은 4년 뒤인 지난 1998년 마침내 조선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시민단체·대학서 수사실무 강의

형사와 내 김 팀장의 책상은 다른 형사들과 좀 다르다. 책상 옆에 커다란 책장이 있고, 50여권의 책이 빼박이 꽂혀있다. 사건이 없는 한가한 때면 안경을 쓰고 책을 들여다 보는 게 영락없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의 모습이다. 저술활동도 열심히어서 '형사소송법'(경찰고시연구원 편찬) 등 5권의 책을 집필했고,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사 경찰' 김운곤 광주 동부경찰서 강력범죄수사 7팀장이 법전에 가득한 자신의 책상에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나문주기자 mjna@kwangju.co.kr



법률인도서외 출신특강을 듣러는 3.6% 최대단기! (6955) 김운곤

휴일 광주·전남 10~20mm 비

주말인 21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휴일인 22일에는 반가운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로 때문에 고민했던 농민들은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가을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5·18구속부상자' 회장 직무정지

광주지법 가처분 인용 회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5·18구속부상자회'의 선임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태풍피해 조작 7억4,000만원 골격

양식업자 12명 불구속입건 목포지방해양경찰 본부 광역수사팀은 20일 태풍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 7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 등의 위·변조)로 권모(46·완도군 약산면) 등 해상가두리 양식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골든벨을 울려라' 전남체신청과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가 20일 광주 봉산중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으로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답을 쓴 백철판을 치켜들고 있다.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시행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날 중 확정된 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교재 리베이트' 학교관계자 소환 방침

유명 출판사와 광주·전남지역 학교 간의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 수수사건(본보 19일자 7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은 20일 해당 출판사 광주총판의 영업사원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의 날 341명 표창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응섭 행정자치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소심한 성격 癌 잘 걸린다

성격과 암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쥐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인터넷매체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공주 정신과 병원서 불

20일 새벽 5시56분께 충남 공주시 교동의 원희정신과원에서 불이 한 환자 이모씨 등 5명이 숨지고 김모(36)씨 등 3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야산서 변사체 발견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능성동 공천초등학교 옆 야산 배수로에서 남자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있는 것을 마을주민 김모(6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처방 방해까지

음주 단속에 걸린 40대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 경찰서행.